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된 건강 관련 중재연구의 동향 : 간호교육에의 시사점

# Trends in Health-Related Intervention Research Appli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유하나<sup>1</sup>, 최정아<sup>2\*</sup>

<sup>1</sup>대전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간호학과

Hana Yoo<sup>1</sup>, Jung A. Choi<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34520, Korea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26426, Korea

### [ 요약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 연구들의 동향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간호 중재 및 교육 방안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Scoping 방법에 따라 8개의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된 604개의 문헌 중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최종 12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은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심리 치료 및 상담, 신체 활동이며, 중재 효과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상의 변수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건강 문제 예방 및 증진을 위한 중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더불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중재 전략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health-related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vide a evidence of nursing educational intervention. The Scoping strategy was applied, the 12 published literatur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on and exclusion criterion among 604 published literature retrieved through 8 electronic databases. The results of this present study showed that most research was conduct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ypes of intervention programs were art therapy, music activities, psychotherapy, and physica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intervention to prevent and promote health problem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necessity of preparing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reas.

**Key Words:** Adolescents, Children, Intervention research, Multicultural family, Trend

<http://dx.doi.org/10.14702/JPEE.2019.13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 May 2019; **Revised** 23 May 2019

**Accepted** 23 May 2019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choi19@yonsei.ac.kr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이란 그 개념이나 범위가 상이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며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가족 내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이 존재하는 가족으로, 즉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 귀화를 요청한 자와 그 가족을 통칭한다[1].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녀, 새터민 가족의 자녀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연구가 2006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연구주제가 인식과 태도, 현황, 정책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개별적 중재가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였다[1]. 그러나 박과 김의 연구[1]는 2002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편찬된 연구를 분석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중재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계속 증가하여 2011년 통계에서는 4.7%를 차지하고 있으며[2],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20년 30만3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9년 2만 6천명에서 2013년 5만 6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전체 취학률이 초등학교 97.2%, 중학교 96.2%, 고등학교 93.6%에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3.0%, 중학교 75.6%, 고등학교 76.7%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4]. 뿐만 아니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5’에 의하면 특별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학습 성취 수준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우울감의 경험 빈도가 높아졌는데[4], 부모 세대의 문화적 차이,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차별이 아동의 건강 불균형의 문제로까지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25편(17.6%)으

로 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남한 입국 후에 학력 단절의 문제, 기초학습능력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정규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자존감 저하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되었는데, 정신건강 연구 측면만 국한하여 분석한 것으로 전반적인 건강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은 파악된 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선행의 문헌고찰 연구들이 학술지의 종류, 연구 편찬 연도, 연구 디자인, 연구내용이 부분적으로 분석되어 있어 실제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재를 계획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자료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중재 연구를 적용하고 계획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연구들의 동향과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근거에 기반을 둔 간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건강관련 연구의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건강관련 연구의 중재의 특성을 파악한다.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건강관련 연구의 중재의 효과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들에 대한 동향과 효과를 분석한 문헌 분석 연구이다.

### B.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5]의 Scoping 방법에 따라 5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Scoping 분석방법은 1단계는 연구 문제의 확인, 2단계는 관련 선행연구의 확인, 3단계는 대상

논문의 선정, 4단계는 선행연구의 정리, 5단계는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요약과 보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2, 3단계는 연구방법에서 4, 5단계는 연구 결과와 논의에서 기술하였다.

**1) 1단계: 연구문제의 확인**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은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관련 중재 연구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2) 2단계: 관련 선행연구의 확인**

a) 검색전략

자료 검색과 분석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검색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에 활용된 국외의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PubMed, CINAHL,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다. 국내의 문헌 검색을 위하여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와 DBPIA, KISS, 스포라(교보문고+학지사)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dolescent, married immigrant women, health, program, educational intervention, informational intervention, coping skill, support group, counseling, psychosocial intervention 등이다.

b) 자료선정 및 제외기준

선정 기준은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문화적 배경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건강관련 변수가 결과 변수로 포함된 연구, 부모와 아동을 모두 적용한 중재는 포함, 실험연구이면서 학회지 출간된 논문과 국내 학위논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제외기준은 문화적 적응을 위해 언어만을 지원한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이나 부모에게 제공된 중재,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 중재, 질적 연구, 결과 변수가 사회 적응이나 학교 적응, 의사소통만을 연구는 제외하였다.

**3) 3단계: 대상 논문의 선정**

자료 선별을 위해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서 제시한 문헌 선택 흐름도(PRISMA flow chart)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검색 전략을 바탕으로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를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은 국내 DB에서는 총 423편, 국외 DB에서는 총 181편으로 총 604편이

있었다. 이 중에서 논문 제목과 초록, 제목과 초록만으로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 전문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총 3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후 선정 기준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중복 게재, 단순조사연구, 이차자료 분석 연구, 질적 연구 등을 제외하고 최종 12편[6-17]의 연구 논문이 선별되었다. 선택된 논문은 문헌의 전문을 2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문헌의 질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연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종 논문 12편을 선정하였다.

**C. 자료분석 방법**

문헌 분석에 포함된 총 12편 연구논문의 특성을 분석한 후 코드화하여 정리하였다. 코딩은 일련번호, 저자, 출판연도, 출판국가, 연구 설계, 표본 수, 연구 대상자, 중재 기간과 강도, 중재 전략, 기타 독립 변수와 측정 도구, 추후 조사 기간, 종속 변수와 측정 도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를 선정과 평가는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인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불일치할 경우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크게 정성적 합성과 정량적 합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는 주요 결과와 중재가 적용된 현장에 대한 이질성이 크고 비뮤티립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통계적인 합성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성적 합성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분석된 연구의 참여자 특성**

중재의 대상자인 아동의 연령은 6세부터 16세까지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10편(83.3%), 중학생까지 포함된 연구가 2편(16.7%)이었다.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4명부터 41명까지 나타났고 8편(66.7%)의 연구가 10명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9편(75.0%)의 연구가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가족을 이룬 경우였고, 한편은 몽골이주노동자, 한편은 부모의 출신 국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한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 경우와 한국인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엄마의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로 나타났다(표 1).

표 1. 분석 문헌의 연구 대상자 특성

Table 1. Participants's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 저자<br>(연도)   | 실험군                  |       |              | 통제군                  |       |              | 부모의 국적       |  |        |
|--------------|----------------------|-------|--------------|----------------------|-------|--------------|--------------|--|--------|
|              | 표본수                  | 연령(세) | 성별           | 표본수                  | 연령(세) | 성별           | 부            | 모  | 부 혹은 모 |
| Hwang (2015) | 6                    | 8~12  | 남 5<br>여 1   |                      |       |              | 한국           | 중국 4<br>베트남 2                                      |        |
| Jin (2011)   | 4                    | 12~15 | 여 4          | 4                    |       |              |              |  | 몽골 4   |
| Kim (2011)   | 12                   | 9~12  | 남 6<br>여 6   | 12                   | 9~12  | 남 7<br>여 5   | 한국           | 필리핀 6<br>일본 2<br>중국 4<br>베트남 8<br>몽골 3<br>우즈베키스탄 1 |        |
| Lee (2012)   | 7                    | 8~12  | 남 4<br>여 3   | 6                    |       |              | 한국           | 중국 5<br>베트남 2                                      |        |
| Lee (2016)   | 5                    | 10~11 | 남 2<br>여 3   | 5                    | 10~11 | 남 1<br>여 4   | 한국           | 중국 1<br>베트남 6<br>캄보디아 3                            |        |
| Oh (2016)    | 7                    | 8~10  | 남 3<br>여 4   | 9                    | 8~11  | 남 4<br>여 5   | 한국           | 혼혈   |        |
| Park (2009)  | 7                    | 6~7   | 남 3<br>여 4   | 7                    |       |              | 한국           | 필리핀 5<br>일본 2                                      |        |
| Park (2015)  | 41                   | 14~16 | 남 21<br>여 24 | 42                   | 14~16 | 남 19<br>여 23 | 한국           | 필리핀<br>일본<br>중국<br>몽골                              |        |
| Park (2017)  | 12 (MCC)<br>11 (SCC) | 초등학생  |              | 13 (MCC)<br>12 (SCC) | 초등학생  |              |              |  |        |
| Roh (2018)   | 15                   | 11~13 | 남 9<br>여 6   | 15                   | 11~13 | 남 9<br>여 6   | 한국           | 중국<br>베트남<br>일본                                    |        |
| Yeum (2010)  | 9                    | 10~13 | 남 7<br>여 2   | 8                    | 10~13 | 남 5<br>여 3   | 한국           | 중국 2<br>필리핀 8<br>일본 7                              |        |
| Yoon (2016)  | 5                    | 8     | 남 2<br>여 3   | 5                    | 8     | 남 3<br>여 2   | 한국 8<br>중국 2 | 중국 6<br>베트남 4                                      |        |

MCC: multi-cultural child, SCC: Single-cultural child

**B. 중재 프로그램의 특성**

중재 프로그램은 10편(83.3%)이 그룹 중재이었고, 2편은 그룹인지, 개별인지, 혼합인지 밝히지 않았다. 미술활동을 이용한 중재는 4편(33.3%), 심리치료나 상담은 3편(25.0%), 신체활동을 이용한 중재는 3편(25.0%), 음악을 이용한 활동 2편(16.7%)이었다. 중재의 총 횟수는 9회부터 27회까지로 주당 1~2회로 제공되었으며, 한 회기당 진행 시간은 최소 40분

에서 90분이었다(표 2).

**C. 측정 변수들의 특성**

각 중재의 결과 변수들을 신체적 변수, 심리사회적 변수, 발달상의 변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11편(91.7%)의 연구가 심리사회적 변수를 주로 결과 변수로 보고하였고, 스트레스, 적응, 우울, 불안, 사회성 등이 심리사회적 변수로 측정

표 2. 분석 문헌의 중재 특성

Table 2. Intervention's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 저자<br>(연도)   | 중재 |                |       |    |          |       |
|--------------|----|----------------|-------|----|----------|-------|
|              | 유형 | 중재 내용          | 기간(주) | 회차 | 주당 시행 횟수 | 시간(분) |
| Hwang (2015) | 그룹 | 미술 치료          | 29    | 27 | 1~2      | 60~90 |
| Jin (2011)   | 그룹 | 심리 치료          | 16    | 23 |          | 60~70 |
| Kim (2011)   | 그룹 | 댄스 활동          | 12    | 24 | 2        | 60    |
| Lee (2012)   | 그룹 | 미술 치료          | 9     | 9  | 1        | 60~90 |
| Lee (2016)   | 그룹 | 미술 활동          |       | 20 | 2        | 50    |
| Oh (2016)    | 그룹 | 음악 활동          | 12    | 12 | 1        | 50    |
| Park (2009)  | 그룹 | 미술 치료          |       | 9  | 2        | 90    |
| Park (2015)  | 그룹 | 그룹 상담          |       | 10 | 2        | 50    |
| Park (2017)  |    | 신체운동교육         | 8     |    |          |       |
| Roh (2018)   |    | 태권도 훈련         | 16    | 16 | 1        | 60    |
| Yeum (2010)  | 그룹 |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       | 10 |          | 60    |
| Yoon (2016)  | 그룹 | 노래 심리 치료       | 7     | 14 | 2        | 40    |

표 3. 분석 문헌의 측정변수에 따른 특성

Table 3. Outcome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 저자<br>(연도)   | 결과 (p)  |  |                               |
|--------------|---|--|-------------------------------|
|              | 신체적 변수  | 심리사회적 변수   | 발달적 변수                        |
| Hwang (2015) |   | 스트레스 (NS)  |                               |
| Jin (2011)   |   | 문화적응스트레스(p<.01),<br>심리적 적응(p<.01)                            |                               |
| Kim (2011)   |   | 위축감 (p<.01), 우울(p<.001),<br>불안 (p<.001)                      |                               |
| Lee (2012)   |   |  | 자아회복력 (p<.05)                 |
| Lee (2016)   |   | 사회적 행동 (p=.043)  | 자존감 (p=.042)                  |
| Oh (2016)    |   | 우울 (p=.023)  | 자아개념 (p<.001)                 |
| Park (2009)  |   | 사회성 (p<.01)  | 자존감 (p<.01)                   |
| Park (2015)  |   |  | 자존감 (p<.001)<br>자기 표현(p<.001) |
| Park (2017)  | 지방량 (p=.045),<br>비만도 (p=.021),<br>심폐지구력(p=.001),<br>유연성 (p=.001),<br>근지구력 (p=.001),<br>근력 (p=.001), | 스트레스 (p=.033)<br>사회성 (p=.001)                                |                               |
| Roh (2018)   | 체력(NS),<br>피로 (NS)  | 우울 (p=.013),<br>긴장도 (p=.012),<br>활기 (p=.012)<br>사회성 (p=.032) | 인지적 기능(NS)                    |
| Yeum (2010)  |   | 스트레스 (NS), 사회적기술(NS),<br>부정적 사고(p=.03)                       |                               |
| Yoon (2016)  |   | 스트레스 (p=.005)  | 자존감 (p=.009)                  |

NS: no significant



되었다. 한편, 2편(16.7%)의 연구만 신체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청소년기 발달 과제로 중요한 자아 존중감이 4편(33.3%)에서 중재 결과의 변수로 보고되었다(표 3).

#### IV. 논 의

본 연구는 2000년도 이후 국내외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된 건강 관련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 기반의 간호 중재 및 교육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분석된 12편의 연구 문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발표 연도는 2009년 1편, 2010년 1편, 2011년 2편, 2012년 1편, 2015년 2편, 2016년 3편, 2017년 1편, 2018년 1편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10편), 중학생 대상의 연구가 2편,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는 부재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 성취[18], 우울[19], 문화적응스트레스[20], 생활만족도[21] 등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학생 이상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적 문제를 포함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한이나 언어 사용의 불편함 등은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22]을 미치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 문제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대상자의 경우, 중재군과 대조군을 각각 10명 이하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8편). 이는 중재군과 대조군을 각각 41명, 42명[13], 15명씩[15]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대상자의 연령대와 중재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상자의 연령대가 10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중재프로그램이 상담, 미술치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한 중재 제공이 어려운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및 확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분석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대상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은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심리 치료 및 상담, 신체 활동으로 구분되었으며, 10세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주로 미술과 음악, 11세 이상인 경우는 심리치료 및 상담이 중재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어린 연령대의 아동에게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음악과 미술 치료가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이며, 학업 성취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신체적인 활동 뿐 아니라 심리치료 및 상담의 중재 방법이 요구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시도된 중재 프로그램은 미술 활동(4편)이고, 그 다음 순으로 음악 활동(3편), 심리상담(3편)이며, 신체적 활동(2편)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7], 자아존중감과 사회성[23], 스트레스[24], 자아탄력성[25]에 미술치료와 심리상담형태의 중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과, 6-8세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23], 스트레스,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이 감소[24]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로 심리사회적인 영역 뿐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 포함한다면, 예술 및 상담 방법을 활용한 중재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제적인 중재가 더 강화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12편의 논문 중 2편만이 신체적인 활동을 중재로 적용하고, 그 효과로 신체적인 측면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심폐능력, 유연성, 근력이 강화되고, 지방량, BMI, 피로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체육 활동이나 태권도와 같은 신체적 활동을 적용한 두 편의 연구 모두에서 신체적인 지표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지표에서도 스트레스, 우울, 긴장도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감소되고, 사회성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중재 방법을 고려함에 있어, 주로 시도되었던 예술 및 심리 상담 뿐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적용한 중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중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헌의 대부분이 정서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둔 경향을 보이며, 아동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 및 비만과 같은 실제적인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은 부재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건강 관리의 취약성으로 인해 이들의 실제적인 건강 문제의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의 현재 혹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중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이를 고려한 중재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재의 지속 기간은 1주에 1-2회씩 7주에서 29주까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중재 횟수는 최소 9회에서 27회까지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고, 각 연구마다 중재에

따른 각 영역별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중재 기간에 따른 종속 변수의 효과에 대해 논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절한 중재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연구 결과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건강 관련 중재의 동향과 효과를 분석하였고, 미술, 음악 등의 예술 활동과 심리 상담을 통한 중재 뿐 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적용한 중재가 신체적 영역과 심리사회적인 영역에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 중재가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인 건강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전략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측면을 통합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간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재가 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수적 증가와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간호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 교육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연구에서 이루어진 중재 방법, 중재 기간 및 종속 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중재 방법과 특정 종속 변수의 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였다. 또한, 2인의 연구자가 자료 검색과정부터 합의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나, 출판논문편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에 있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적 영역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건강 문제 예방 및 증진을 위한 중재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간호 교육 현장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건강 증진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반복 확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일반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 결과의 정량적 고

찰 및 합성을 위한 메타분석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학업 성취, 문화 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 가정의 수적 증가와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간호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 교육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C1B501797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RF-2017R1C1B5017976).

## 참고문헌

- [1] H. S. Park and K. W. Kim, "Research trends regard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5, no. 4, pp. 459-485, 2012.
- [2] Statistics Korea. Marriage Divorce Statistics in 2011 [Internet]. Available: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55001](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55001).
- [3] D. H. Seol, M. H. Suh, S. S. Lee, and M. A. Kim, "A study of the medium- to long-term prospect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on the focus of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nd the analysis of its socio-economic impacts on Korean societ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Seoul: Korea, Trend Research Report, 2009.
- [4] Statistics Korea.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2015 [Internet]. Availabl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0992&vw\\_cd=MT\\_OTITLE&list\\_id=154\\_11779\\_30&scrId=&s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0992&vw_cd=MT_OTITLE&list_id=154_11779_30&scrId=&se)

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 [5] H. Arksey and L. O'Malley,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8, no. 1, pp. 19-32, 2005.
- [6] S. H. Hwang,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multicultural children's stress levels,"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15.
- [7] Y. S. Jin, "The effects of group psycho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1.
- [8] I. S. Kim and K. H. Lee, "An effect of dance and movement therapy (DMT)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 7, no. 4, pp. 57-73, 2011.
- [9] H. J. Lee and S. J. Chang,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for improving ego-resilienc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9, no. 4, pp. 837-858, 2012.
- [10] H. Lee, K. Park, and M. Song, "Effect of formative artistic activities using objects on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Art & Design*, vol. 19, no. 2, pp. 87-110, 2016.
- [11] S. H. Oh, E. Y. Hwang, and Y. M. Jun,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music activities on reduction of depression and change of self-concep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 12, no. 3, pp. 203-225, 2016.
- [12] S. J. Park and Y. S. Choi, "A effectivenes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 esteem and social improve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521-2538, December 2009.
- [13] E. M. Park, "The effect of the multicultural youth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2, no. 1, pp. 37-54, 2015.
- [14] J. W. Park, S. H. Park, C. M. Koo, D. Eun, K. H. Kim, C. B. Lee, J. H. Ham, J. H. Jang, and Y. S. Jee, "Regular physical education class enhances sociality and physical fitness while reducing psychological problem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vol. 13, no. 2, pp. 168-178, April 2017.
- [15] H. T. Roh, S. Y. Cho, and W. Y. So, "Taekwondo Training improves mood and sociability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5, no. 4, pp. 757, 2018.
- [16] S. H. Yeum, H. Shin, and S. Oh,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group training program on social skill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stress in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9, no. 3, pp. 853-873, 2010.
- [17] S. Y. Yoon and K. S. Kang, "The effects of song psycho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ilot stud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 18, no. 2, pp. 119-138, 2016.
- [18] C. O. Bae and S. H. Chi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directions of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s in farming and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5, pp. 421-434, May 2015.
- [19] Y. Ah and M. Jeon,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school exclusion on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no. 38, pp. 125-147, 2017.
- [20] K. R. Lee,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in North Korean defector youth: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vol. 1, pp. 157-180, 2011.
- [21] J. Y. Lee and G. H. Chung,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6, no. 3, pp. 336-362, 2016.
- [22] A. M. Napoles, S. L. Stewart, and A. Garza,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cervical cancer education intervention for latinas delivered through interactive, multimedia kiosks," *Journal of Cancer Education*, vol. 33, pp. 222-230, February 2018.
- [23] S. J. Park and Y. S. Choi, "A effectivenes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 esteem and social improve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521-2538, December 2009.

[24] S. H. Hwang,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multicultural children's stress levels,"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15.

[25] H. J. Lee and S. J. Chang,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for improving ego-resilienc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9, no. 4, pp. 837-858, 2012.



**유 하나 (Hana Yoo)\_정회원**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1년 9월 ~ 2018년 2월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최 정 아 (Jung Ah Choi)\_정회원**

201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9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간호학과 연구강사